

신학 용어 분류를 위한 패싯 설계에 관한 연구

Establishing Facet for Classifying Theological Terms

유 영 준(Yeong-Jun Yoo)*

목 차

- | | |
|------------------|---|
| 1. 서론 | 3.2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
| 2. 연구 방법과 이론적 근거 | 3.3 문헌정보학 시소러스 |
| 2.1 개혁 신학 용어의 선정 | 4. 개혁 신학 용어의 분류 |
| 2.2 패싯 분석 | 4.1 분류 과정의 요약 |
| 3. 패싯 분류의 활용 | 4.2 용어 분류 |
| 3.1 수정된 랭가나단 패싯 | 5. 결론 |

초 록

신학 분야의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전 단계로서, 패싯을 이용하여 신학 용어를 분류하였다. 영어로 된 신학 사전에서 1,031개의 용어를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실제로 분류한 용어의 수는 984개이다. 용어를 분류하기 위해서 전개한 패싯은 기본 패싯 7개와 하위 패싯 14개이었다. 분류한 용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신학 분야의 특성에 맞게 물리적 형태를 갖는 구체적인 용어의 수보다 추상적인 용어의 수가 많았으며, 전체 용어 수의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문헌 분류를 위한 십진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이러한 특정 주제 분야의 용어를 분류하고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ological terms using facets and form foundation to build a theological thesaurus. The terms was chosen in a English theological dictionary and the number of them are 1,031, but eventually, 984 terms were classified. The facets which classify the terms are 7 fundamentals and 14 sub-facets. Analysing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abstract terms are much more than physical terms. They are 70% of the whole. Decimal classification to classify documents comes to dead end, therefore I think the research to classify terms of a specific subject as theology must be activ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have knowledge about a specific subject to organize information in a specific subject.

키워드: 신학 용어, 개혁 신학, 패싯 분류, 시소러스, 용어 분류

Theological Terms, Reformed Theology, Facet Classification, Thesaurus, Term Classification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yp6370@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19일

1. 서론

분류의 대상은 문헌이 아니라 문헌의 내용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도 책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담고 있는 지식 즉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내용을 분류의 대상으로 한다. 즉 분류의 대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의 대상에는 책뿐만 아니라 동식물, 의류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또는 대상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에서 연구해 온 분류는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이러한 분류 체계들은 모든 학문 분야의 문헌들을 분류의 대상으로 하며, 이를 보편 분류 또는 문헌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라고 부른다. 이와 대칭되는 분류 체계는 특수 분류 또는 과학 분류(scientific classification)라고 부른다. 홀랜드(Hjørland 2002)는 정보 조직 분야에서 특수 분류와 시소러스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뚜렷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석 기법이면서 동시에 개념 관계를 구축하고, 특정 주제 분야의 용어들을 조직하고 처리할 수 있는 패킷 분류의 유용성과 가치를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수 분류 즉 특정한 한 주제 분야를 선정하고, 분류의 대상을 문헌이 아닌 그 주제 분야의 용어들만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특정 주제 분야의 용어를 분류하는 것은 그 주제 분야의 문헌들을 분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방법론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과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에

서 사용해 온 문헌 분류 체계가 아닌 패킷 분류를 사용하였다. 이 패킷 분류는 패킷 분류 체계(Colon Classification)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분류 체계에서 사용된 패킷 또는 패킷 분석을 활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 논문에서는 신학 분야의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즉 이미 개발되었거나 활용하고 있는 패킷들을 참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불어 신학 분야의 특성을 분석하여 신학 용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을 특성에 따라 패킷 또는 범주를 생성한 후에, 실제 용어들을 분류하여 먼저 생성한 패킷들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신학 분야의 용어를 분류하기 위해 패킷 분석을 이용해서 용어들을 범주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인 신학 용어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토대를 이 논문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방법과 이론적 근거

2.1 개혁 신학 용어의 선정

여기서 말하는 신학(theology)이라는 용어는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가 아닌 개혁 신앙 교회(Reformed Faith Church)의 한 교파인 개혁 교회(Reformed church)의 신학인 개혁 신학(Reformed Theology)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개혁 신앙 교회)의 신학 용어 전체를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혁 신학의 용어(Reformed theological terms)만

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개혁 신학의 용어들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선정 과정의 첫 번째 원칙에서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류의 대상인 개혁 신학의 용어들은 『Westminster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McKim 1996)에서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의 주요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 교회사, 교회 정치, 윤리학, 교파(denominations),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 로마 가톨릭 신학(Roman Catholic theology), 여성 신학(feminist theology)과 개혁 신학(Reformed theology) 등 다수의 신학 유파와 예배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용어들이 모두 개혁 신학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은 용어를 선정하여 분류하는 것은 이 논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개혁 신학의 핵심적인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들만을 엄격하게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예외적인 용어들도 포함시켰으며, 이 용어들은 개혁 신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연관성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의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은 개혁 신학 용어들만을 수록한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 신학에 적합한 용어들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었다.

선정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혁 신학의 핵심 교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즉 성경의 핵심적

인 내용들과 관련된 용어들을 주로 선정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 신학의 용어들을 분류의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더불어 여기에 개혁 신학의 정의와 함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개혁 신앙의 5가지 교리로 정리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설정한 패시와 패시에 속하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다음의 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혁 신학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개혁 신학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McKim 1996). 루터 신학(Lutheran theology)과는 다르게, 개혁 신학은 존 칼빈(John Calvin)과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와 같은 다른 개혁자들(reformers)의 헌신으로 세워진 신학적 전통이다. 그리고 구원(salvation), 선택(election) 그리고 그리스도와 의 연합(union)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또는 주권(initiative)이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정의에서 언급된 존 칼빈은 개혁 신학을 완성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신학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칼빈주의(Calvinism)는 개혁 신학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칼빈주의의 5대 교리(five points)를 통해서 개혁 신학의 사상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점은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으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 즉 몸, 영혼, 생각(mind) 그리고 정서가 부패하였으므로, 인간은 완전히

1) 개혁 신앙 교회는 일반적으로 줄여서 '개신교'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완전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와도 유사하다.

타락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요점인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요점인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죄만을 짊어졌다는 주장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이다. 네 번째 요점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은 참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한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정의와 교리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감리교(Methodist), 루터교(Lutheran) 그리고 다수의 침례교회(churches)의 신학적 견해를 반영하는 용어들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위의 교파의 견해들을 반영하는 용어들을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혁 신학에서 천명한 다섯 가지 견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들 교파들의 신학 사상은 개혁 신학의 사상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을 더 중요시 하는 알미니안니즘(Arminianism)²⁾의 신학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파들의 신학 용어들 중에서 개혁 신학의 용어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은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Arminianism'과 'unlimited atonement' (무제한 속죄) 등이 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신학 용어를 분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신학 시소러스로 발전시키려는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소러스의 용어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도 반의어를 관련어 즉 연관관계(associative relationship: Related Term)로 설정하는 맥락과 연관이 있다. 그 이유는 반의어가 우선어(descriptor)를 연상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Aitchison et al. 2000).

또한 성경에 쓰인 일반적인 사물을 지칭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보통의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도 선정하였다. 이렇게 일반 신자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포함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신학 용어와 성경에 쓰인 용어들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의 활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시소러스에서 선정하는 용어들 가운데에는 전문적인 용어(term)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word)도 시소러스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

2) 개혁 신학의 사상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신학 사조를 지칭한다.

기 때문이다(김태수 2000). 더불어 신학 용어 범주와 용어 분류 이후에 구축할 시소러스를 이용할 대상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용자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일반 시소러스에서는 제외하거나 독립된 파일로 유지되는 고유명사 즉 지명과 인명 등의 용어들도 포함시켰지만, 전체 용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 철학이나 신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는 특정 인물과 그 인물이 발전시켰거나 지지한 사상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용어를 분류하기 위한 패시를 설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언급할 또 다른 특징은 신학 용어의 특성 중의 하나인 다양한 언어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신학 용어는 주로 4 가지의 상이한 언어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특성은 성경이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더불어 중세에 학문 연구에 주로 쓰이던 라틴어 그리고 현재 폭넓게 쓰이는 영어로 번역된 용어들도 쓰이고 있다. 물론 영어로 번역된 매우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영어로 표현된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 중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donai'(Lord)와 'agape'(God's love)와 같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들과 'agnus dei'(little lamb of God)와 'analogia entis'와 같은 라틴어 용어 등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는 편의상 영어 철자로 변환하여 표시하였고, 라틴어는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선정 과정 결과 선택된 전체 용어의 수는 1,031개이며, 분

류의 대상이 된 용어의 수는 984개이다.

2.2 패시 분석(Facet analysis)

분석합성형 분류에서 개념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패시 분석(facet analysis)은 랑가나단(Ranganathan)이 제시한 PMEST 즉 개체(personality), 에너지(energy), 재료(matter), 공간(space), 시간(time)의 5개 기본 패시(fundamental facets)에서 유래되었다. 랑가나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이나 대상(object)은 위의 5가지 패시로 분류 또는 범주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특정 주제 분야의 시소러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류 구조가 분석합성형 분류라고 불리는 패시 분류(faceted classification)라는 사실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불어, 브로튼(Broughton 2000)에 의하면 인문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 주제 분야의 개념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주제 분야의 용어들을 처리하는 데 패시 분류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합성형 분류에서는 개념을 일정한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로 분석하는데 이를 패시 분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교회(church)를 '가시성'(visibility)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패시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visibility)

비가시 교회(invisible church/church catholic)³⁾

가시 교회(visible church/church local)⁴⁾

이와 같이 가시성이라는 범주가 생성되고, 그 범주에 'invisible church'와 'visible church'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가시성은 범주의 이름이면서 그 범주의 특성이 되고, 구성 요소 전체와 그 이름을 통칭해서 패시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교회가 갖는 특성 중에서 가시성이라는 구분 기준(principle of division)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로 구분하는 것을 패시 분석(facet analysis)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주제 영역에서 수집된 용어에 내재하는 특성 또는 개념에 따라 용어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바로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특성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패시들을 생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패시 분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패시 분류와 시소러스간의 유사성이 의미하는 것은 패시 분류가 여러 면에서 시소러스 구축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패시는 해당 주제 분야의 개념간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어휘들에 패시들을 추가하는 것이 용이하며, 기존 용어들의 용어간의 관계에서 의미와 역할을 추가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Aitchison 2000). 즉 패시 분류를 사용하면 용어의 의미나 다른 용어간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패시 분류가 시소러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새로운 패시

를 추가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 영역에서 새로운 하위 주제 영역이 생겨 나거나 새로운 특성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패시를 추가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소러스의 확장 또는 용어의 추가와 관련해서도, 패시가 새로운 특성 기준에 의해 세분되거나 다시 구분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패시들을 추가하기가 편하다는 유용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패시 분류가 시소러스의 용어들을 범주화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이 사례들을 토대로 신학 용어를 분류하는데 적합한 패시 범주를 제안하였다.

3. 패시 분류의 활용

3.1 수정된 랑가나단 패시

여기에서는 상세한 하위 범주 모두를 다루지 않고 기본 범주 즉 최상위 범주들을 중심으로 3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신학 용어에 적합한 범주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미 구축된 시소러스 중에서 패시 분류를 적용하여 용어들을 범주화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신학 용어를 분류하기 위한 패시를 설정하는 데 참조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용어들을 구분하고, 묶어주기 위해서 어떤 기본 범주들을 사용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개혁 신학 분야에 적합한 기본 범주들을 제안하려고 한다.

3) 비가시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말한다.

4) 가시 교회는 경배와 예배라는 목적으로 특정한 한 지역에 존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표 1>은 에이치슨(Aitchison et al. 2000)이 랭가나단의 PMEST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제안한 기본 범주이다.

4개의 기본 범주에서 'entities'는 크게 두 기준에 의해서 하위 패킷을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였다. 먼저 'actions/activities'는 두 개의 하위 패킷으로 구분했고 'space' 패킷과 'time' 패킷은 하위 패킷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특정 주제 분야만을 위한 패킷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패킷 구조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치슨의 패킷들을 활용해서 개혁 신학 용어를 위한 기본 패킷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abstract entities' 패킷을 더 세분화하거나 'entities/objects/things'의 하위 패킷을 참조하거나 또는 패킷의 명칭을 신학 용어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제 영역보다 신학

영역에는 다른 학문 영역보다 더 많은 추상적인(abstract) 개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대상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 즉 이론, 사상과 관념들을 더 많이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3.2 UMLS(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UMLS의 의미망(semantic network)에서는 기본 범주를 개념 범주(concept categories)나 개념 유형(types)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UMLS에서는 패킷을 계층적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념의 복잡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패킷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McCray 1993). 그러나 계층적인 구조로 패킷을 범주화하는 방법은 일

<표 1> 에이치슨 등이 제안한 패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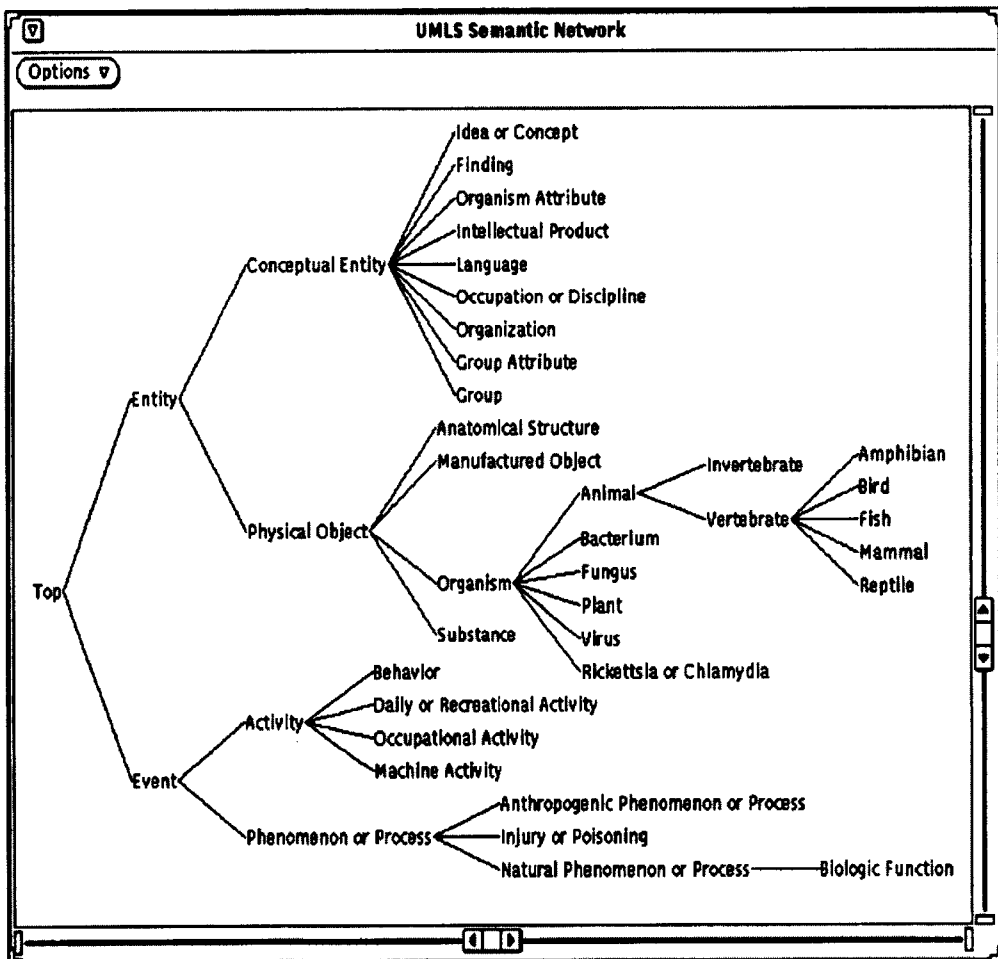
facets	sub-facets		
entities/ things/ objects	(by characteristics)	abstract entities naturally occurring entities living entities, organisms artefacts(man-made) attributes: properties/qualities materials/substances parts/components whole/complex	
	(by function)	agents	individuals equipment/apparatus
actions,	activities	patients	
		end-products	
		processes/functions	
		operations	
space			
time			

반적인 것은 아니고, UMLS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UMLS의 패킷의 상세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UMLS에서 기본 패킷은 크게 'entity'와 'event'로 구분하고, 각각의 패킷이 나무구조(tree structure)처럼 계층적으로 범주화된다. 'entity'는 'object'나 'thing'같은 용어로 대체될 수 있으며, 랭가나단이 사용한 용어로는 개체(personality)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entity'와 'event'는 전체 용어를 두 개의 큰 특성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랭가나단이나 에이치슨이 제안한 기본 패킷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ntity'의 하위 패킷인 'conceptual entity'는 다수의 하위 패킷으로 구분되는데, 추상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추정되는 개혁 신학 용어들을 분류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위 패킷들을 참조하는



<그림 1> UMLS의 계층적인 패킷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에이치슨이 제안한 기본 패킷과 UMLS의 기본 패킷을 비교했을 때, 서로 유사한 하위 패킷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UMLS의 기본 패킷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의학이라는 특정 주제 분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문헌정보학 시소러스(Thesaurus of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y, and Librarianship)

레드먼드-널(Redmond-Neal and Hlava 2005)은 문헌정보학분야의 시소러스를 편찬했는데, 이 시소러스에서는 7개의 기본 패킷과 18

개의 하위 범주로 용어를 분류하였다. 상세한 패킷은 <표 2>와 같다.

에이치슨의 기본 범주에서는 'people and organizations'을 각각 개별적인 패킷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하나의 패킷으로 통합시켰고, 'theoretical concepts and influences on information' 패킷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함으로써, 독립된 패킷으로 전개한 에이치슨의 패킷과는 다르다. 또한, 'actions, events, and processes'는 에이치슨의 'actions/activities' 패킷과 동일한 범주이고, 'physical objects'도 에이치슨이 제안한 범주와 동일하다.

그러나 에이치슨의 기본 범주와 비교했을 때, 이 주제 분야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패킷인 'information, information delivery formats and channels'가 있다. 이렇게 해당 주제 분야

<표 2> 문헌정보학 시소러스의 패킷

fundamental facets	sub-facets
people and organizations	organizations persons and informal groups product and service providers
actions, events, and processes	activities and operations natural processes and events
physical objects	buildings and facilities communications networks hardware, software, and equipment physical media
theoretical concepts and influences on information	attributes fields and disciplines language sociocultural aspects
information, information delivery formats and channels	communications media document types knowledge and information
methods of study	research and analytic methods
geographic information	countries and regions

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패시를 찾아내는 것은 그 주제 분야의 주제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만 가능하고, 그 주제 분야의 용어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methods of study' 패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을 보여주는 패시이라고 할 수 있고, 학문 간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다른 주제 분야의 용어를 분류할 때도 고려해 볼만한 패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시소러스의 접근점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외국의 세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지만, 신학 용어를 패시로 분류하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신학 분류 체계가 거의 없었다는 아쉬운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UDC에서 '종교'를 분류하기 위해서 BBC(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의 패시 분류를 참조하여 만들었지만, 이 논문에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 이외에 웹에서 제공되는 보편 분류 체계의 일부로 종교의 하위 범주에 신학 분류 체계가 있었지만, 열거형 분류 체계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패시를 이용해서 시소러스의 용어들 분류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소러스 작성에 패시 분류 체계를 이용한 연구(손대형 1998)는 기존의 패시 분류 체계인 BBC에서 개념과 관계를 추출하여 작성한 시소러스에 패시 도구를 삽입한 것으로 실제 분류 체계를 만들기 보다는 용어의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와는 관점이 다르지만, 패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둘째, 고전 용어 시소러스 작성 이전 단계에서 고전 용어들을 패시로

분류한 연구(유영준 2006)에서는 열 개의 기본 패시로 용어들을 범주화 하였다. 그 기본 범주는 '인물', '자연물', '문헌', '유적', '물품', '법제', '시간', '지명', '사상', '사건' 등이다. 고전 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소러스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범주들이 포함되었고, 랭가나단의 패시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본 패시 대부분이 개체 패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박지영(2004)은 양조학 관련 용어의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패시를 이용해서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기본 패시는 '재료', '맥주', '양조', '산지', '시기' 등이고, 하위 패시는 20개로 범주화 하였다. 기본 패시는 이 연구의 기본 패시보다 수는 적지만 패시의 유형은 동일하다. 즉 랭가나단의 패시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패시명은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게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2.2 패시 분석'과 위에서 참조한 내용에서도 밝힌 것처럼 패시 분류의 유연성 또는 역동성과 더불어 특정 주제 분야의 문헌이나 용어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패시 분류의 타당성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패시 분류는 특수 분류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보다 특정하고 세세한 문헌이나 용어를 분류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문헌분류체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갖는 문헌이나 용어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 주제 분야가 많은 특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특성에 맞게 패시의 수를 다양화함으로써 해당 주제 분야의 문헌이나 용어를 망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개혁 신학 용어의 분류

4.1 분류 과정의 요약

개혁 신학 용어에 대한 패킷 분석과 분류를 통해 드러난 기본 패킷과 하위 패킷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기본 패킷은 7개이고, 이 중에서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와 시간(time) 패킷은 하위 패킷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이들 패킷에는 하위 패킷으로 전개할 만큼 용어들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 패킷과 하위 패킷에 대한 설명과 이들 패킷에 포함된 용어들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4.1 이론적 개념' 이하에서 각 패킷별로 개별적으로 기술하였다.

일차로 선정한 1,031개의 용어 중에서 분류 과정에서 47개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984개의 용어를 각 패킷에 배정하였다. 제외한 47

개의 용어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분류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패킷에 속한 용어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추상적 대상(abstract objects)이 280개(29%), 행위, 사건, 관례(actions, events, practices)가 247개(25%), 이론적 개념(theoretical concepts)이 155개(16%), 사람, 영 그리고 조직체(people, spirits and organizations)가 130개(13%), 물리적 대상(physical objects)이 122개(12%), 시간(time)이 33개(3%), 지리 정보(geographic information)가 17개(2%) 순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물리적 대상보다 추상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신학은 인문학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거나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개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

<표 3> 신학 용어의 패킷과 용어의 수

기본 패킷	하위 패킷	용어의 예
이론적 개념(155)	교의/이론(47) 신학 사상과 학파(108)	dogmatics biblical theology
사람, 영, 조직체(130)	교파/공동체/교회(55) 개인과 영(75)	Cappadocian Theologians last adam
추상적 개념(280)	지식/내용/정보(56) 정서/거룩성/세속성(48) 헌신/순종/불순종(97) 속성(54) 언어(25)	foreknowledge heart office total inability Aramaic
물리적 대상(122)	성서(18) 역사 문서(14) 성물(90)	Septuagint (LXX) Heidelberg Catechism Tabernacle
행동/사건/관례(247)	활동(196) 사건(51)	limited atonement diaspora
지리 정보(17)		Sheol
시간(33)		exile

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고전용어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영문으로 된 신학 사전에서 선택한 것이므로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한글 용어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글로 번역하여 함께 기재하였다. 그러나 패시의 이름은 필요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기하였으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들은 영문자 알파벳으로 표기하였고, 라틴어 용어들은 그대로 기재하였다.

4.2 용어 분류

4.2.1 이론적 개념(theoretical concepts)

이 패시는 개혁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을 표현하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종말론 등 개혁 신학뿐만 아니라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른 연구의 밑바탕을 이루는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패시에는 교의/이론(doctrine/theory)과 신학 사상과 학파(theological thoughts and schools) 등 두 개의 하위 패시를 갖는다. '교의/이론' 패시에는 'christology', 'doctrine of God', 'soteriology' 등의 용어를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의 주된 주제이었던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교의/이론' 패시의 용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인 'filioque',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substance)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homoousios', 셋째, 삼위 간의 친밀한 연합(intimate union)과 삼위 간의 내주(mutual dwelling) 그리고 삼위 간의 관통(mutual interpenetration)을 의미하는 'perichoresi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학 사상과 학파' 패시에는 신학 사상의 학파들의 주장과 관련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heism', 'atheism', 'deism'은 일반적인 신의 존재 유무에 관한 용어들이고, 둘째, 'Athanasianism'과 'Augustinianism'은 고대 신학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신학 사상이고, 'Calvinism'과 'Reformed theology'는 종교 개혁 시대에 생겨난 개혁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그리고 'Arianism'과 'Arminianism'과 같은 개혁 신학 사상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했던 학자들의 사상도 포함시켰고, 'fundamentalism'과 'dispensationalism'과 같은 한국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장도 포함시켰다. 더불어 'systematic theology'와 'biblical theology'는 신학 연구와 성경 해석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신학이고, 한국 기독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evangelism'(복음주의) 등의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4.2.2 사람, 영 그리고 기관(people, spirits and organizations)

이 패시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신학자, 성서 인물 그리고 영적 존재들을 분류하였으며, 개혁 신앙 교회에 여러 교파들의 교회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성서 해석에서의 차

이나 신학적 입장에서의 다양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패킷의 하위 패킷은 교파/공동체/교회(denominations/groups/churches)와 개인과 영적 존재(persons and spirits)로 전개하였다. '교파/공동체/교회' 패킷에는 개혁 신앙 교회의 교파들이나 그 교파의 교회들 그리고 특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를 분류하였다. 용어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arly church fathers'는 초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둘째, 'Cappadocian Theologians'는 초기 교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 명의 교부들을 말한다. 셋째, 'councils'는 교부들이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비성서적인 주장을 하는 교부들로부터 교회와 성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열렸던 종교회의이다. 그리고 이 종교회의 중의 하나인 'Constantinople Council' 등을 이 패킷에 분류하였다. 넷째, 'Levites'는 구약에서 야곱의 12 아들 중 한명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제사장을 일을 도왔다.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한 지파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다섯째, 'Pharisees'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던 지도자 집단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Reformed churches'는 종교 개혁 초기에 개혁자들을 지칭하던 'Protestant'와 종교 개혁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말한다. 일곱째, 'Calvinistic Methodism'은 개혁 신앙 교회의 한 교파를 지칭한다. 이외에도 신학자 바르트(Barth)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Barthian', 교회와 동의어인 'people of

God' 또는 'covenant people' 등을 이 패킷에 분류하였다.

두 번째 하위 패킷인 '개인과 영적대상'에 분류한 용어에는 성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즉 'Adam', 'Eve', 'Melchizedek', 'Moses' 등과 약속의 성취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인 'Messiah',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 또는 경고를 사람들이나 왕 또는 특정 민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prophet' 등의 개인들을 이 패킷에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믿는 사람들 통칭하는 용어인 'saint' 등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성도'라는 용어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외에도 신구약 교회와 연관해서 동시에 출현하는 용어인 'elder'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감독 역할을 하는 직분을 말하며, 개혁 전통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와 '감독'하는 장로를 구분하고 있다. 이 용어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신약 교회의 직분(office)의 하나인 'deacon'과도 연관이 있으며, '집사'도의 식과 교제와 관련된 책임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직분의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antichrist'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하는 개념이며, 'nominal christian'은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자를 일컫는 용어다.

4.2.3 추상적 대상(abstract/general objects)

이 패킷은 5개의 하위 패킷으로 전개하였는데, 지식/내용/정보(knowledge/content/information), 거룩성/세속성/정서(emotions/holi-

ness/worldliness), 헌신/순종/불순종(commitment/obedience/disobedience), 속성(properties) 그리고 언어(language) 등이다. 이렇게 하위 패킷을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에서 신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적(notitia), 정서적(assensus), 의지적(fiducia)인 요소이다. 이 세 가지 특성 즉 패킷을 적용하여 이 패킷의 세 하위 패킷을 전개하였고, '속성'과 '언어' 두 패킷으로 나머지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용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 패킷인 '지식/내용/정보'에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analogy'는 어떻게 동일한 속성들을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가 사용한 신학적 개념이다. 둘째, 'dogma'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진리로 인정받은 중요한 가르침이나 교의(敎義)를 말한다. 셋째, 'foreknowledge'는 어떤 일들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의 원인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넷째, 'marks of the church'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교회의 표상인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등의 네 가지 특성이 있다. 한편,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과 권징(censer)을 교회의 표징으로 강조하였다. 다섯째, 그리스어 'hypostasis'와 'ousios'를 영어로 번역한 말인

'substance'는 니케아 종교회의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글에서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성을 언급할 때 사용한 용어다. 이 패킷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용어는 'theopoesis'로 인간이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견해로서, 주로 동방 교회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이나 지식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용어들을 이 패킷에 분류하였다.

두 번째 하위 패킷인 '정서/거룩성/세속성'에 포함시킨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hrist's agony'는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뎌낸 심각한 고통을 뜻하는 용어다. 둘째, 'grace'는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 없이 얻은 호의를 말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유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 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hate'는 사랑에 대한 강한 반의어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나 악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적대적인 죄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heart'는 성경적으로, 감정과 가치 판단이 결정되는 인간 본성의 중심이면서, "부정직"하고 "비뚤어진" 또는 "순수한", "정직한", "청결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등의 다양한 관형어로 표현된다. 다섯째, 'joy'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서와 연관된 삶과 극한 행복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trust'는 믿음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확신을 말하며,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용어들을 이 범주에 분류하였다.

세 번째 하위 패킷인 '헌신/순종/불순종'에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enant of grace'는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은혜로 구원의 약속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관계 속으로 자신을 스스로 얽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언약들에 의해 구약 성서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최종적인 완성도 내포한다. 둘째, 'office'는 교회 내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룩한 지위인데, 일부의 직분들은 일시적이어서 직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된 용어다. 셋째, 'Reformed tradition'은 존 칼빈과 그리고 츠빙글리와 불링거와 같은 다른 개혁자들의 헌신으로부터 생겨난 신학적 전통으로, 16세기에 루터주의와 재세례파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넷째, 'assurance of salvation'은 참 신자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다섯째, 'creed'는 믿음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성명으로, 초대 기독교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요약된 형식의 문서를 발표해 왔다. 여섯째, 'revealed law'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도덕법을 일컫는 용어로서, 자연으로부터 알게 되는 자연법과는 대조가 된다. 거룩한 계시로서의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완성된 그리고 완전한 법을 나타내는 용어다.

네 번째 하위 패킷인 '속성'에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tholicity'는 기독교 교회

의 보편적 본질 즉 누구나 교회에 들어 올 수 있고 특정한 조건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의미와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세워지고 그 지역적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뜻의 용어이다. 둘째, 'henosi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 됨을 뜻하는 용어로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이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라는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셋째, 'infallibility of the Bible'은 성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벽하게 믿을만한 하다는 강한 믿음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넷째, 'omnipotence'는 신적 의지나 지식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의해서만 제한받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성질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다섯째, 'total inability'는 개혁 신학의 주장으로, 자신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장이다. 여섯째, 'trinitarian properties'는 삼위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과는 구별되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말한다.

다섯 번째 하위 패킷인 '언어'에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parables of Jesus'는 가르침의 방편으로 요약된 형식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사용한 비유적 이야기로서, 특히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둘째, 'poetic parallelism'은 특별히 시편에서 발견되는 히브리 시의 특징으로, 연하고 있는 두 구절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통합적인 의

미를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이 특성은 단지 시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Aramaic'은 히브리어와 연관된 언어로 히브리 성서의 일부가 이 언어로 쓰여 졌고 예수가 사용하던 언어도 아람어였으며, 신약 성서의 일부에서도 이 언어의 어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tetragrammaton'은 'YHWH'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들을 지칭한다. 지금은 'Yahweh' 즉 한글 성서의 '여호와'로 표기되고 있지만, 그 이름이 부르기조차도 매우 거룩해서 영어로는 'Lord', 히브리어로는 'adonai'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TULIP'은 두문자어이면서 개혁 신앙의 5대 교리를 쉽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르트 회의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신학적 관점 5가지는 전적 부패(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등 이다.

4.2.4 물리적 대상(physical objects)

이 패킷에는 신학 용어 중에서 주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용어들과 예배 의식에서 사용된 악기 등의 용어들을 포함시켰다. 이 패킷은 성서(Bible), 역사 문서(historical documents) 그리고 성물(facilities)의 세 하위 패킷으로 전개하였다. 첫 번째 하위 패킷인 '성서'에는 성경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용어들을 분류하였으며, 용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ketubim'

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글이라는 의미이고 히브리 성서의 셋째 부분으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등이 포함된다. 둘째, '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은 "King James Version"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에 의해 흠정된 영어 번역본이다. 이 역본의 아름다움과 운율로 인해서 서양의 영어권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Septuagint(LXX)'는 히브리 성서가 당대의 주요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 이전 1세기경이었다. 이 용어는 70명의 번역 작업의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번역본이 초대 교회의 성서이었다. 넷째, 'the four Gospels'는 신약 성서의 첫 4권을 말하는데, 이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문학적 장르가 다르지만, 서로 공통적인 내용도 담고 있으며 고유한 특징과 서술에 있어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torah'는 명령 또는 법이라는 의미인데,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구약 성서의 처음 5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두 번째 하위 패킷인 '역사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배정되었다. 첫째, 'Dead Sea Scrolls'는 쿠파란 공동체의 도서관 장서였으며 이 문서들은 유대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본문 다수가 그 공동체의 생활을 규정한 문서들과 함께 기록되어있다. 둘째, 'Belgic Confession'은 필립 4세로부터 종교적 관용을 구했던 네덜란드 칼빈주의 개혁자들에 의해 작성된 37개 조문으로

된 선언문이며, 도르트 회의에서 수정된 이후에 개혁 교회의 주요 신앙고백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셋째, 'Canons of Dort'는 도르트 회의의 신학적 가르침을 말하는데, 도르트는 네덜란드의 도시이름이고,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체계적인 칼빈주의로 인정받았다. 넷째, 'Heidelberg Catechism'은 개혁 신학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와 캐스퍼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에 의해 작성된 신앙 고백으로서,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개혁 신앙의 기본 교리를 실제적인 경건성과 함께 정리하였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혁 신앙 문서 중의 하나다. 다섯째, 'Niceno-Constantinopolitan Creed'는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에서 채택된 기독교 신조이며, 일반적으로 니케아 신조(Nicene Creed)와 함께 언급된다.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를 발전시킨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아리아니즘과 논쟁을 벌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한 중요한 역사적 문서이다. 여섯째,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는 영국 내전 당시에 칼빈주의자들이 작성한 중요한 신학적 문서 중의 하나로 스코틀랜드 교회와 미국 장로교회의 주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

세 번째 하위 패킷인 '성물'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첫째, 'ark of covenant'는 히브리인들이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서 매고 이동하던 상자를 지칭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둘째, 'golden calf'는 광

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위해 세운 우상으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거룩한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Gregorian chant'는 서양 교회에서 사용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배 때에 부르던 노래로, 로마의 대주교였던 그레고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가 이 음악의 사용을 표준화하였다. 넷째, 'manna'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음식이다. 신약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다섯째, 'organ'은 예배 때에 거룩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를 말한다. 그리고 여섯째, 'Tabernacle'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천막의 일종으로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회막(會幕)이라고도 불렸다.

4.2.5 행위, 사건, 관례(actions, events, practices)

이 패킷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행동과 이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와 관련된 용어와 이러한 행동들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의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킷은 두 개의 하위 패킷 즉 활동(activities)과 사건(events)으로 전개하였다. '활동' 패킷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분류하였다. 첫째, 'atonement'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둘째, 'election'은 구원의 유익을 누리
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사
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교리는 개혁 신학
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셋째,
'prayer'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찬송과
존귀, 고백, 감사, 간구와 도고(禱告)로서 하나
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revelation'
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말씀을 전달함
으로써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나 뜻을 알리는
것으로, 자계시(自啓示)와 말씀계시 그리고
자연계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섯째, 'worship'
은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존귀,
감사와 간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독교 예배
는 찬양처럼 삼위일체적인 형식을 갖는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성부께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koinonia'는
히브리어로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관계이
며, 초대 기독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
진 교제를 말한다. 일곱째, 'inspiration'은 하나
님의 말씀 또는 계시를 받도록 사람들을 감동
시키는 것으로 성서를 저술한 저자들과 특히
관련 있는 개념이다. 개혁 신학에서는 유기
적 영감설(organic inspiration)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하위 패킷인 '사건'에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ptism'은 몸을 물에 완전
히 담그거나 물을 뿌리는 예식을 말하는데, 이
예식은 세례 받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
자들을 구원하는 예표(豫表)다. 그러나 세례는
단지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믿기 이전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

혜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공식적 선
언이다. 둘째, 'diaspora'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에 팔레스타인 외곽에 살던 유대인들과 관련된
용어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정 사람들
의 종교나 문화가 그 본래의 지역으로부터 떠
나는 것을 말한다. 셋째, 'incarnation'은 삼위
일체 하나님 중의 한 위격인 영원한 제2위 로
고스(logos)가 사람이 되었다는 교의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도
요한의 말이 이 교의를 증거하고 있다. 넷째,
'outpouring of the Spirit'은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의 특별한 현시(顯示)를 일컫는데, 특히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resurrection'
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을 말하며 마지막 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
의 부활도 지칭할 수 있다. 여섯째, 'tempta-
tions of Jesus'인데,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후
에 사탄에게 받은 시험을 말한다. 이 시험은 세
가지인데,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성전 꼭대기
에서 뛰어내리는 것,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4.2.6 지리 정보(geographic information)

이 패킷에는 패킷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성서
나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한 신학적으로 의미
를 가지는 주요 사건이나 인물들과 관련된 지
명에 관한 용어들을 포함시켰다. 이 패킷은
용어의 수가 적어서 하위 패킷으로 전개하지
않았으며,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Areopagus'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고대 아테네의 모임장소를 말한
다. 둘째, 'Calvary'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형을 당한 예루살렘 밖의 언덕으로 생김새가
사람 두개골처럼 생겼다는 데에서 유래된 용어

다. 셋째, 'Dort'는 도르트레히트(Dortrecht)의 줄임말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고 인정받은 네덜란드의 도시다. 넷째, 'Sheol'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무덤, 구덩이, 지옥 등으로 번역되며, 그리스어 'Hades'와 심판의 개념과 연관되어진다. 다섯째, 'Zion'은 신·구약 성서에서 예루살렘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었는데, 하늘의 도시를 말하며, 기독교회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된다.

4.2.7 시간(time)

이 패킷에도 지리정보 패킷과 유사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시점, 시기 또는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포함시켰다. 시간 패킷도 용어수의 부족으로 하위 패킷으로 전개하지 못했으며, 이 패킷에 분류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day of judgement'는 의인은 구속하고 악인은 벌하는 하나님 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말하는 신약의 용어이다. 동의어로는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 등이 있다. 둘째, 'exile'은 고대 바빌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인 70년을 의미한다. 셋째, 'Christian Passover'는 부활절이나 죄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용어로, 노예로부터 이스라엘의 탈출과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넷째, 'jubilee'는 구약의 성서에 의하면 매 오십번째 해에 땅은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은 자유를 얻고, 채무는 탕감하는 등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를 말한다. 그리고 예수의 강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섯째, 'Reformation day'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신학 용어에 적합한 분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 분야의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신학 용어를 분류하기 위한 패킷들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분류 체계를 시소러스에 통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용어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미리 용어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분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연구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었으며, 신학 사전을 활용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는 개혁 신학의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신학 용어에 적합한 패킷 분류 구조를 구축하기 전에 이미 구축된 시소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구조들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신학 분야의 시소러스 있지만, 정밀하게 조직된 신학 분야의 시소러스가 없다는 것이다. 시소러스가 있어도 분류 구조 자체가 없거나, 모든 주제 영역을 모두 다루는 보편적인 시소러스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요

소 중의 하나는 이처럼 신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존의 시소러스의 분류 구조를 참조하여 개혁 신학 용어를 분류하기 위한 7개의 기본 패싯과 14개의 하위 패싯을 설정하였고, 이 패싯으로 분류한 용어의 수는 984 개이었다. 기본 패싯 중에는 '지리 정보'와 '시간' 패싯처럼 하위 패싯으로 전개하지 못한 기본 패싯도 있었고, '추상적 대상' 패싯처럼 5개의 하위 패싯으로 전개한 패싯도 있었다. 이 패싯에 가장 많은 수의 용어를 분류하였고, 전체

용어 수의 29% 정도를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패싯 분석은 지식이나 정보를 조직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주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 분야의 용어를 분류하고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신학 용어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데 까지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의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 데스몬드 알렉산더, 브라이언 로즈너 편집. 2004. 『IVP 성경신학사전』. 서울: 한국기독교학회출판부.
- 박지영. 2004. 다차원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실험적 연구. 『지식처리연구』, 5(1/2): 1-33.
- 손대형. 1998. 『패싯분류체계를 이용한 시소러스 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영준. 2006. 고전 용어 시소러스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415-434.
- 유해무. 2007.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 개혁 신앙 강좌 7. 서울: 성약출판사.
- Aitchison, Jean et al. 2000. *Thesaurus construction and use: a practical manual*, 4th ed. Chicago: Fitzroy Dearborn Publishers.
- Broughton, Vanda. [cited 2008.7.13]. <<http://www.ifla.org/IV/ifla66/papers/034-130e.htm>>.
- The getty. [cited 2007.7.11]. Art & Architecture Thesaurus. Retrieved from <http://www.getty.edu/research/conducting_research/vocabularies/aat/>.
- Grunenberg, L. Facet Analysis: Using Faceted Classification Techniques to Organize Site Content and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ASIS&T 2002 Information Architecture Summit, Baltimore, MD., March 15-17. [cited 2007.7.10]. Retrieved from <<http://www.willpowerinfo.co.uk/thesbibl.htm>>.

- Hjørland, Birger. 2002a. "Domain analysis in information science: eleven approaches - traditional as well as innovative." *Journal of Documentation*, 58(4): 422-462.
- ISO. 1986. Documentation: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onolingual Thesauri. 2nd ed. ISO 278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McCray, A. T. 1993. UMLS knowledge for biomedical language processing.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1(2), 184-194.
- McKim, Donald K. 1996. *Westminster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uller, Richard A. 1985.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Redmond-Neal, Alice and Hlava, Marjorie M. K. 2005. *Thesaurus of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y, and Librarianship*. 3rd ed. ASIS&T Monograph Series. Medford, New Jersey : Information Today.
- Shearer, James R. 2004. *A practical exercise in building a thesaurus*, in *The thesaurus: review, Renaissance, and revision*. Sandra K. Roe and Alan R. Thomas edited. Binghamton: The Haworth Information Press.
- Spiteri, Louise. 1998. A simplified model for facet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23 (1/2), 1-30.
- Spiteri, Louise. 1999. The essential elements of faceted thesauri.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8(4), 31-52.
- Spiritrestoration.org. "Theological Terms Dictionary." [cited 2007.7.19]. Retrieved from <http://www.spiritrestoration.org/Theological_Terms/A_Prior_%20to_Born_Again.htm>.
- Wolters, Albert M., and Goheen, Michael W. 200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